

전주시, 레저스포츠 산업도시로 도약

드론축구 보급·저변확대·세계화 위한 기반 구축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가 세계적인 스포츠 레저산업 종합전시회에 공식 초청받으면서 전주가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앞서, 시는 3D프린팅과 드론산업,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ICT산업과 사물인터넷(IoT) 산업을 접목시킨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데 이어, 드론축구상설체험장 구축과 드론축구 선수단 창단 등 드론축구의 보급과 저변확대,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

전주시 드론축구선수단(단장 김승수 전주시장)은 창단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TOP2 스포츠·레저산업 종합전시회인 '2017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

전(SPOEX 2017)'에 공식 초청을 받아 드론축구의 진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드론축구 시범경기장을 운영한다.

드론축구선수단은 오는 26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이번 SPOEX 2017에서 매시간당 2반씩 총 48차례의 수준 높은 시범경기를 선보이게 된다.

스포츠레저산업과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드론축구는 탄소소재와 드론 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축구공 모양을 한 드론 5대가 한 팀이 되어 상대팀 골대에 들어갈 때마다 득점을 하는 공중 경기다.

경기물은 공처럼 생긴 드론 5대가 고리 모양 골대를 지나면 1점을 획득하고, 드론 하나가 연속 득점을 못하도록 득점 후 1초 동안은 추가 점수

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전주시 드론축구단이 선보인 드론축구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ICT를 접목한 스마트경기장에서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이와 함께 시는 드론축구 관람을 위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0만 관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 등을 홍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일 드론축구 선수단 창단식을 갖고, 드론축구의 진수를 시민들과 세계에 알리고 홍보할 드론축구 선수 2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는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기술을 융·복합해 개발한 드론축구가 널리 보급되면, 향후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등 전주 시 5

대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축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널리 확산시켜, 전주를 중심으로 드론을 매개로 한 새로운 스포츠 산업 시장이 형성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SPOEX 2017은 올해로 17번째 열리는 스포츠·레저 종합전시회로, 1628개 부스에 국내·외 기업 434개사가 참여해 IT기술이 접목된 국내·외 스포츠레저 산업계의 스포츠용품의 첨단화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로 손꼽힌다. 또, 부대행사로 전주시 드론축구 경기와 VR(가상현실)스포츠와 같은 첨단기술을 응용한 스포츠 행사가 전시기간 계속 이어진다.

/김영재 기자



전북경찰청 사이카 순찰대 발대식

적응훈련·안전훈련·코너링 등 주행 테스트 마쳐

올해 전북에서 치러지는 각종 국제행사의 안전을 책임질 사이카 순찰대가 23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권역 및 광역별 교통 사이카 순찰대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사이카 순찰대는 올해 5월과 6월 전주와 무주에서 각각 치러지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와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교통안전에 담당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사이카 순찰대는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적응훈련과 안전훈련, 코너링 등 주행 테스트를 마쳤다.

또 국제행사를 찾는 선수와 주요 인사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감 있는 기동경호 훈련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사이카 순찰대원들은 국제행사 안전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교통관리의 성공이 곧 대회의 성공이라는 각오로 사이카 순찰대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치러지는 국제행사를 통해 전라북도과 전북경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 국제행사안전팀을 발족하고 주요 대회가 치러지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위험을 점검하는 등 국제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지방분권 실현 위한 제도적 개선 절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 태권도 선수권대회 지원 요구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225차 월례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및 지리산 산악철도 국책사업 추진 건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전환 등 중앙정부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파산상태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무주군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225차 월례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북도와 14개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력을 요구하고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170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하여 전북도 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무형의 효과들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전 세계인이 어우러지는 지구촌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역균형 발전과 지

리산권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에 대한 공약 사업이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리산 산악철도는 케이블카와 달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는 물론 지리산 사계절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은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함께 모으자"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16살 친딸 성추행한

30대 아버지 징역 4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3일 "성관계를 해본 적 있다"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로 기소된 김모씨(36, 남)에게 징역 4년을 명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전북 전주시의 자택에서 16살인 친딸이 자신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이유로 미니 당구대의 큐대로 엉덩이를 150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같은 달 딸의 가방에서 남자친구의 편지가 발견되자 강제로 A양의 옷을 벗기고 큐대로 엉덩이를 60대 가량 때린 후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딸에게 성관계 여부를 묻고 없다는 답변을 듣자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딸을 추행·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탄소융합기술원,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 상담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는 23일 서울 프론틱 트레이딩에서 탄소마을 등 지난해 창업맞춤형사업 선정 기업 5곳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상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성장의지가 있는 창업기업과 국내의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연계시키고, 정확한 마케팅 전략수립을 도와 기업 매출 확대와 글로벌마켓 플레이스 구축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상담회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4차산업과 연계한 탄소산업 고부가가치 제품 소개를 시작으로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 사업아이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각각의 아이템에 맞는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다. 또, 마케팅 전략 우수 사례가 있는 2개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과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의 시간도 가졌다.

이와 관련, 한국탄소기술원 창업보

육센터는 창업맞춤형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공적 마케팅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 국내 마케팅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마케팅클럽을 만들고, 월 2회의 상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마케팅 상담회 개최와 마케터 연계로 국내 시장 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는 친환경첨단복합단지내 지상 3층, 보육실 17개로 탄소융합부품소재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탄소전문기업 육성 공간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현재 17개 탄소전문 창업기업이 입주해 탄소복합소재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